

# 아동이 지각한 부모갈등과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김 미 옥(가톨릭대 박사과정) · 이 미 숙(가톨릭대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이 지각한 부모갈등과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관련하여 부모갈등의 중요성을 규명하고 이에 기초하여 아동의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부유대 등 가족관련 향상 프로그램 방안 마련에 필요한 실증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데 있다. 연구대상은 서울 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 4학년 아동 200명이며,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동이 지각한 부모갈등 척도는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을 국내에서 권영옥과 이정덕(1997)이 번안하고 주성연(2006)이 사용한 것으로, 부모갈등의 빈도, 강도, 미해결정도 등 3개 하위영역으로 총 19개 문항이며, Cronbach's  $\alpha$ 값은 .95이다. 아동의 자아탄력성 척도는 Block과 Kremen(1996)의 척도를 장영수(2008)가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총 14개 문항으로 Cronbach's  $\alpha$ 는 .82이다. 아동의 자기효능감 척도는 이진희(2007)가 사용한 것으로,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 등 3개 하위영역으로 총 24개 문항이며, Cronbach's  $\alpha$ 는 .85이다. 자료분석방법은 SPSSWIN 17.0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Cronbach's  $\alpha$ 계수, t검증, F검증, Scheffe사후분석, Pearson상관관계, 그리고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경변수인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부모갈등,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가족 여가활동으로서 가족여행의 빈도가 많은 가족은 그렇지 못한 가족에 비하여 부모갈등의 빈도와 미해결정도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더 높게 나타났고, 자기효능감 중에서는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선호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상관분석 결과, 부모갈등은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자기효능감과도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때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로써 부모갈등은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자기효능감과 의미있게 부정적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모갈등 중 특히 미해결정도가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은 가족여가활동 정도가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함께 고려했을 경우에는 자아탄력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 본 연구 결과, 가족 여가활동을 자주 경험하는 가족의 경우 부부갈등이 적고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점에 기초해볼 때, 가족여행을 포함하여 가족 여가활동을 증대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활성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 앞에서 여과되지 못한 부모의 폭력적 언어와 싸움, 해결되지 못한 부모의 갈등을 많이 경험한 아동은 자아탄력성이 낮고, 자아탄력성이 낮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낮아진다는 본 연구결과는 아동의 역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에 대해 심층적 연구가 더 많이 수행되어야 하며, 부부갈등 예방과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의사소통의 기술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